**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GMT**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새로운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GMT를 만나다. 39mm 직경의 케이스와 항공 여행의 황금기를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컬러가 감미된 양방향 회전 베젤은 해외 여행 매니아들의 니즈에 대한 해답이다.**

튜더(TUDOR)가 블랙 베이 라인에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GMT를 새롭게 추가했다. 완전히 새로워진 이 모델은 여러 시간대로의 신선함과 화려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새로운 미드 사이즈 GMT 자체 제작 칼리버는 버건디, 블랙, 골드 톤의 따뜻한 컬러의 베젤과 함께 장착되어 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의 케이스가 이제 GMT 형태로 새롭게 찾아온다.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은 튜더 다이버 시계 중 최초로 수심 200미터까지 방수를 보장했으며, ”빅 크라운(Big Crown)”으로 알려진 레퍼런스 7924의 시계가 출시된 해를 기념하며 이름 붙여졌다. 이 역사 깊은 시계의 디자인 특성 중 주목할 만한 것은 1950년대 초기 모델 특유의 비율에 따라 제작된 직경 39mm의 케이스이다. GMT 기능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시계이며,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GMT는 중세기의 우아함과 제트족들을 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골드 톤의 24시간 눈금을 장착한 버건디 및 블랙 베젤은 블랙 베이 라인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디자인은 튜더 다이버 워치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비행기가 여러 시간대를 누비며 사람들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 아워 마커와 핸즈 그리고 투톤 베젤의 아워 마커에는 골드 톤을 더했다.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GMT에 포함된 또 다른 인기 있는 특징으로는 튜더 로즈 로고가 양각된 와인딩 크라운이 있다.

**주요 특징**

1. “오리지널”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과 동일한 비율의 39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골드 톤으로 포인트를 준 블랙 및 버건디 컬러의 24시간 양방향 회전 베젤
2. 은은한 돔드 다이얼, 매트 블랙, 골드 톤의 포인트
3.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핸즈, 1969년 도입된 튜더 다이버 워치의 상징, A등급 야광물질 스위스 수퍼-루미노바®(Swiss Super-Luminova®)
4. GMT 자체 제작 칼리버 MT5450-U, 실리콘 헤어 스프링, 65시간의 파워 리저브,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COSC)의 인증
5. METAS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6. 2가지 브레슬릿 타입: "T-fit" 클라스프가 장착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3열 링크 '리벳 스타일' 브레슬릿  
   "T-fit" 클라스프가 장착된 러버 스트랩
7. 별도의 등록 또는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이 요구되지 않으며 양도 가능한 5년간의 보증

**튜더의 퀄리티**

튜더는 새로운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GMT의 출시와 함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또 하나의 블랙 베이 모델을 METAS에 제출하여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는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체 튜더 컬렉션의 METAS 인증이라는 미래에 한 걸음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튜더 자체 제작 칼리버에서 많은 수정이 필요했던 스위스 공식 기관의 METAS 인증 획득은 튜더 시계의 우수한 품질을 재확인한 것이다.

**포괄적인 독립 기관의 인증과 높은 기준**

METAS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은 정확성, 자기장에 대한 저항성, 방수, 파워 리저브 등 시계의 주요 기능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는 정확성부터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립된 시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오차 범위가 5초(0/+5초) 이내여야 하며, 이는 COSC 인증 기준(-4/+6초)보다 5초, 튜더 자체 제작 무브먼트의 기준(-2/+4초)보다는 1초 더 엄격한 기준이다. 또한 이 인증은 15,000가우스의 자기장에 노출되어도 시간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방수 성능과 파워 리저브가 명시한 대로 기준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이 인증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스위스 제작 기준에 따라 스위스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무브먼트는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COSC)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METAS의 기준 및 테스트,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블랙 베이가 획득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에 필요한 테스트와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스위스 제작
*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기관(COSC)의 인증
* 2개의 다른 온도와 6개의 위치 및 100%와 33%의 파워 리저브 레벨에서 정확성
* 15,000가우스의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 원활한 작동 및 노출 후의 정확성
* 수심 200미터(660피트) 방수
* 65시간의 파워 리저브

**GMT 자체 제작 칼리버 MT5450-U**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GMT를 구동하는 자체 제작 칼리버 MT5450-U는 튜더의 기술 개발 과정 특징을 잘 보여주며, 추가 모듈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개조형 무브먼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어떤 누구에게는 작은 디테일일지 모르지만, 워치메이킹 정통파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시, 분, 초, GMT 기능을 보여주는 이 칼리버는 특유의 태양 광선 디자인으로 튜더 자체 제작 칼리버의 보편적인 외관과 느낌을 지니며, 브릿지에 마스터 크로노미터 마크가 있어 시계의 탁월한 성능을 강조한다. 텅스텐 모노블럭으로 제작된 오픈워크 로터는 샌드 블라스트 디테일이 가미된, 독특한 방사형 레이저 홈이 새겨져 있다. 브릿지와 메인 플레이트는 샌드 블라스트와 폴리싱이 번갈아가며 처리되어 있으며 레이저 장식이 돋보인다.

자체 제작 칼리버 MT5450-U는 견고함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2점 고정 시스템으로 견고해진 횡단 지지대를 통해 일정한 왕복 운동이 가능한 가변 관성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이 무브먼트는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COSC)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성능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COSC의 인증 기준은 케이스를 조립하지 않은 무브먼트의 하루 허용 오차 범위를 -4초에서 +6초로 규정하고 있으나, 튜더는 완전히 조립된 시계를 기준으로 -2초에서 +4초 이내의 오차 범위를 고집하며 METAS에서는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시계가 0초에서 +5초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할 것을 요구한다. 자체 제작 MT5450-U는 그 정확성뿐만 아니라 15,000가우스의 자기장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항자성 기능까지 인증 받았다.

자체 제작 칼리버 MT5450-U의 또 다른 특징은, 일명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Weekend-Proof)“ 파워 리저브이다. 약 6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금요일 저녁에 시계를 푼 후 월요일 아침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시간을 다시 맞출 필요가 없다.

**상징적인 룩**

블랙 베이는 튜더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한 라인이다.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GMT의 케이스는 블랙 베이GMT의 41mm보다 얇은 39mm 사이즈를 제공한다. 양방향 회전 베젤은 탁월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인서트에 새겨진 숫자들은 베젤 아웃라인에 맞춰 미세하게 곡선으로 새겨져 있다. 디자인적 디테일은 케이스 크기와 베젤에서 멈추지 않는다. 롤리팝 디자인의 초침은 브랜드 초기 다이버 워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방사형으로 브러시된 새틴 블랙 다이얼은 직사광선 아래서 은은한 빛을 발산한다. 인체 공학적으로 발전한 새로운 디자인의 크라운은 브랜드의 역사적인 테크니컬 워치의 크라운에서 볼 수 있는 곡선을 연상시키며, 튜브가 보이지 않도록 미들 케이스와 나란히 곡선을 이루고 있다.

**”리벳 스타일“ 브레슬릿 혹은 러버 스트랩, 모두 “T-FIT” 클라스프 장착**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GMT 모델의 3열 링크 ”리벳 스타일“ 브레슬릿은 튜더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선보인 폴딩 리벳 브레슬릿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 리벳 브레슬릿은 측면의 리벳 헤드로 유명했으며, 클라스프에서 시작하는 각 링크가 차례대로 조금씩 커지는 계단식 디자인이 특징이었다. 이 두 가지 미적 특징은 솔리드 링크와 레이저 피니시된 ”리벳” 헤드와 같이 현대적인 방법이 반영되어 오늘날 튜더 시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브레슬릿은 빠르게 길이 조정이 가능한 혁신적인 튜더 “T-fit” 클라스프를 갖추었다. 조작이 쉽고 별도의 도구 없이 5단계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최대 8mm까지 브레슬릿 길이를 즉각적으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이 클라스프에 장착된 세라믹 볼 베이링은 부드럽고 안전하게 닫히며 기분 좋은 조작감을 제공한다.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GMT 모델에서 다른 옵션으로는 사이즈 조절을 위해 커팅이 가능한 블랙 러버 스트랩이3가지 사이즈로 제공되며 이는 튜더 “T-fit” 클라스프를 갖추고 있어 완벽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스트랩 안쪽에는 시그니처인 스노우플레이크 모티프가 새겨져 있으며, 이는 이 모델만을 위한 형태로 특별히 제작되었다.

**블랙 베이의 정수**

블랙 베이 라인은 1950년대 튜더 다이버 워치 다이얼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1969년 브랜드 카탈로그에서 선보인 후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스노우플레이크”로 알려진 튜더 고유의 각진 형태의 핸드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크라운 가드가 없는 것과 케이스의 특징도 1세대 튜더 다이버 워치를 떠올리게 한다.

블랙 베이 라인은 전통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워치메이킹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다. 단순히 클래식 라인의 재출시가 아니라, 튜더의 70년 다이버 워치 역사를 한데 모으면서 동시에 현재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네오 빈티지 컨셉으로 제조 기술과 견고함, 신뢰성, 내구성, 정확성 및 마감 품질은 현대의 업계 기준을 넘어선다.

**튜더 자체 생산 시설**

모든 튜더 시계는 스위스 르 로클에 위치한 새로운 튜더 자체 생산 시설에서 튜더의 높은 기준에 따라 조립되고 완전한 테스트를 거친다. 이 새로운 최첨단 시설은 워치메이커들의 노하우와 최고의 생산 관리 및 자동화된 테스트 시스템을 결합하여, 3년간의 공사 끝에 2021년 완공되었다. 튜더의 브랜드 컬러인 레드로 외부를 장식한 이 생산 시설은 총 5,500 제곱 미터에 달하는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에 설립된 튜더 무브먼트 생산 시설인 케니시(Kenissi) 생산 시설과 물리적,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케니시와 튜더 소유 계열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튜더는 고성능 메케니컬 칼리버의 개발과 생산을 통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튜더는 이제 핵심 부품의 제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여 탁월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튜더 보증**

튜더는 창업자 한스 빌스도르프가 1926년 브랜드를 출시한 이래, 그의 이상적인 워치메이킹에 대한 비전에 따라 최고의 견고성, 내구성, 신뢰성, 정확성을 갖춘 시계를 제작해왔다. 이러한 경험과 시계의 우수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튜더는 모든 제품에 대해 5년간 보증을 제공한다. 이 보증은 별도의 등록이나 정기적인 유지 보수 점검을 요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튜더는 시계의 모델과 일상적인 사용 범위에 따라 대략 10년마다 서비스 받길 권장한다.

**튜더의 본투데어(BornToDare) 정신**

2017년, 튜더는 브랜드의 도전 정신을 담아 본투데어 라는 고유의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튜더의 본투데어 정신은 오랜 기간 동안 육∙해∙공 그리고 얼음 위에서 과감하게 모험을 하는 이들의 손목에서 함께 해왔다. 이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손목 시계를 제공하겠다는 신념으로 튜더를 설립한 한스 빌스도르프의 혁신적인 비전과도 일맥상통하며, 첨단 워치메이킹 산업에서 놀라운 혁신으로 벤치마킹되고 있는 튜더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증명하기도 한다. 대담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최고의 앰버서더들이 이처럼 훌륭한 튜더의 본투데어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튜더 소개**

튜더는 정교한 스타일, 입증된 신뢰성과 합리적인 가격대를 지닌 메케니컬 시계를 제공하며 수많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이다. 튜더의 기원은 롤렉스 창립자인 한스 빌스도르프(Hans Wilsdorf)를 대신하여 “더 튜더(The TUDOR)”가 처음 브랜드로 등록된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46년 공식적으로 Montres TUDOR SA 회사를 설립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품질을 갖추면서 전통적인 롤렉스 철학을 존중하는 시계를 생산했다. 그들의 역사를 통틀어, 견고성과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튜더 시계는 육∙해∙공 및 얼음 위에서 가장 대담한 모험가들에 의해 선택되었다. 오늘날, 튜더 컬렉션은 블랙 베이(Black Bay), 펠라고스(Pelagos), 1926 및 튜더 로열(TUDOR Royal)과 같은 상징적인 라인을 포함한다. 2015년부터 튜더는 또한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성능을 가진 자체제작 메케니컬 칼리버가 장착된 모델을 제공해왔다.

**레퍼런스 7939G1A0NRU**

**케이스**

폴리싱 및 새틴 피니시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39mm 케이스

**베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24시간 눈금 양방향 회전 베젤에 양극 산화된 블랙 및 버건디 알루미늄 인서트

**와인딩 크라운**

튜더 로즈가 양각된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류-다운 와인딩 크라운

**다이얼**

골드 톤의 아플리케 아워 마커가 장착된 돔드 블랙

**크리스탈**

돔드 사파이어 크리스탈

**방수**

수심 200미터(660피트)

**브레슬릿**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3열 링크 “리벳 스타일” 브레슬릿 또는 러버 스트랩, 모두 빠른 조정이 가능한 “T-fit” 클라스프 장착

**무브먼트**

칼리버

자체 제작 칼리버 MT5602-U(COSC 및 METAS 인증)

양방향 로터 시스템을 갖춘 셀프-와인딩 메케니컬 무브먼트

GMT 기능 탑재

**파워 리저브**

META 인증 65시간 파워 리저브

**정확성**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Swiss Official Chronometer Testing Institute, COSC)의 인증

METAS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기능**

다이얼 중앙에 위치한 점핑 아워, 24시간 시침, 분, 초침

점핑 아워 시침과 연동되는 3시 방향의 날짜창(비수정 범위 없음)

시간을 맞출 때 초침이 정지하여 정확한 시간 설정 가능

**오실레이터**

가변 관성 밸런스, 스크류를 사용한 미세 조정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시간당 진동수: 28,800회(4Hz)

**총 직경**

30.3mm

**두께**

6.14mm

**보석 수**

34개